

##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정동적 노동과 삶능력\*

윤 수 현  
(경상대학교)

Yun, Suhyen. "Affective Labor and Biopower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3 (2020): 169-189.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is a novel that is interpreted variously by numerous feminist thinkers due to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its meaning. This paper aims to reevaluate the value of the feminine labor shown in *Mrs. Dalloway* in light of the concept of the affective labor of Antonio Negri and Michael Hardt. To achieve this goal, this thesis first looks at the concept of Spinoza's affect, which Gilles Deleuze interpreted, and how it was expressed in the novel. Affect refers to immateriality that is materially and ideologically impossible to reproduce between idea and idea, immaterial affect that is shown through constant encounters of joy and sorrow in Spinozian terms. If the goal of life is ultimately to achieve stability and freedom by increasing pleasant encounters, feminine labor demonstrates the biopower to achieve this goal. Therefore, lastly, I delved into how Mrs. Dalloway and the labors of Rezia in *Mrs. Dalloway* display their biopower and rebuild their post-war lives. Through this process, Woolf's idea of feminine labor can be understood comprehensivel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affective labor, affect, biopower, communication, feminine labor

---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비 수혜를 받은 논문입니다.

## I. 서론

본 연구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 나타난 정동적 노동에 주목해 보는 동시에 이 정동적 노동이 어떠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댈러웨이 부인』은 모더니즘 소설의 선두주자로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등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쓰인 소설로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댈러웨이 부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이고, 그 두 번째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연구이고, 그 세 번째는 페미니즘적인 연구이다.

특히 페미니즘적인 연구에 있어서 『댈러웨이 부인』에 대한 평가는 텍스트의 다층적인 내러티브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엇갈리는 평가가 많았다.<sup>1</sup> 실제로 울프의 서술의 복잡성과 복합성으로 인해서 저자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기 어렵다. 그렇기에 하이트(Molly Hite)는 울프가 중의적인 감정의 공여를 이용하여 단선적인 해석을 피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였다고도 본다(261). 모더니즘 전통 속에서 울프가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데에 있어 단면적인

<sup>1</sup> 무디는(A. D. Moody) 클라리사 댈러웨이(Clarrisa Dalloway)는 울프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캐릭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클라리사가 표면적으로는 생기가 넘치지만 내면적으로는 “반짝이는 시시한 것들 속에 정신의 죽음”(death of her spirit in glittering triviality, 19)을 표상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울프의 전기를 쓴 리(Hermione Lee)는 “울프가 사교계 여주인들의 세계에 대해 매혹되기도 하지만 경멸”(Woolf’s fascinated dislike of the world of society hostesses, “Mrs. Dalloway” 17)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일영과 조영지는 라캉의 이론을 대입하여 “실재계를 추구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댈러웨이를 부정적으로 평가”(215)하였다. 이처럼 작품의 제목이자 주인공인 클라리사의 흔히 여성적이라고 칭해지는 모습과 그녀의 일상에 대한 관심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왔다.

그 반면에 클라리사의 두드러지는 여성성을 남성 사회에 대항하는 여성적인 힘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 예로 노영신은 『댈러웨이 부인』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이 “사회체제나 관습에 매몰되지 않고 창조해 내는 여성적 가치를 남성 중심적인 당시의 이념을 전복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19)고 하였으며 정명희는 울프가 “오랜 세월동안 여자들의 영역으로 당연시되고 숭배되며, 동시에 폄하되었던 바느질이나 파티의 가치들을 재정의 하고 긍정적으로 전유”(159)했다고 주장한다. 차메키는 이 소설이 “삶을 유지하는 여성성과 모성의 교리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부장적인 구조를 강조한다”(highlights the life-sustaining nature of feminine, matriarchal tenets and the patriarchal constructs that strive to undermine them, 50)고 하였다.

묘사에 그치려 하였다고는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다. 클라리사가 때로는 사교계의 안주인과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만족하는 속물적인 캐릭터로 오해를 받게 쓰인 데에는 의도가 있다. 이에 기존의 클라리사의 여성성을 긍정하려고 하였던 여러 시도에 더해 여성적인 노동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델러웨이 부인』의 무대가 되는 1923년은 1차 세계대전 후로 여성의 역할이 ‘집안의 천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때이다. 하지만 극중 주인공 클라리사는 단면적으로는 전형적인 ‘집안의 천사’를 답습하는 듯하다.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과 『삼 기니』(*Three Guineas*)와 같은 페미니즘 정전이라 일컬어지는 글을 쓴 울프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만무하다. 클라리사의 사상이나 감정을 떠나 그녀의 노동이 ‘집안의 천사’와 유사하게 그려진 데에는 의도가 존재하고, 그러한 여성적 노동<sup>2</sup>이 전후의 삶을 지탱하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삼 기니』에서 울프가 주장한 전후에 투자해야 하는 여성성의 가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복원한다면 여성적 노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동과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정동적 노동(affective labor)에 대해서 이해하고, 능력(puissance)(슬픔과 기쁨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운신 범위)을 살펴본 이후에는 클라리사와 레치아(Lucrezia Warren Smith)와 같은 주요 등장인물이 어떻게 이 정동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즉, 레치아가 자신의 남편 셉티머스(Septimus Smith)와 소통하려는 노력과 클라리사의 파티를 여는 행위 등을 새롭게 재조명하여 삶 그 자체의 토대를 세우는 행위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들의 정동적 노동의 일환인 소통 노동과 돌봄 노동과 같은 비물질 노동은 전후에 삶을 새롭게 구축하고,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삶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sup>2</sup> 여기서 말하는 여성적 노동이란 통상 여성적인 노동이라고 여겨져 왔던 가사 및 돌봄 등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꼭 여성만이 하는, 혹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II. 정동적 노동과 삶능력

정동적 노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동(affect)이란 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스피노자(Spinoza. B)가 『에티카』(*The Ethics*)에서 설명한 정동을 재해석하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정동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1978년 뵐센느 대학에서의 강의를 옮긴 “정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에서 들뢰즈는 정동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는 먼저 관념(idea)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동을 이해하려 한다. 관념이 “무언가를 재현하는 사유의 양식”(『비물질 노동과 다중』 23)이라고 한다면 정동은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는 사유”(『비물질 노동과 다중』 24)의 양식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관념이 “재현적 사유양식”(『비물질 노동과 다중』 25)이라면 정동은 “비재현적 사유양식”(『비물질 노동과 다중』 25)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그것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간에 그것을 지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실재를 가지는 관념을 창조한다. 세상은 관념들로 가득 차있기는 하지만 관념에서 관념으로의 이행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거나 관념 외의 것들이 존재한다. 들뢰즈는 그것을 정동이자 변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덧붙여 들뢰즈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에 따라 누군가의 행동 능력 혹은 존재 능력의 증대-감소-증대-감소의 형태로 연속적인 변이가 존재”(『비물질 노동과 다중』 31)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 혹은 존재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의 증대와 감소는 존재의 살아 있는(lived) 정도와 관련이 있는데 스피노자는 이를 기쁨과 슬픔이라는 정서(affectio)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존재는 끊임없이 다른 존재 혹은 관념과의 우연한 마주침(occurus)을 통해서 그 존재의 능력이 증대되거나 감소되는데, 이때에 존재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경우를 기쁨 마주침이라고 하고, 반대로 존재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나쁜 마주침이라고 한다. 물론 하위 관계들 속에서 기쁨 속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스피노자는 가정한다. 그런 경우에 그 기쁨과 슬픔의 정도에 따라서, 즉 존재의 삶의 확대와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긍정적인 마주침인지 부정적인 마주침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속적인 변이, 혹은 하나의 실재 정도에서 다른 실재 정도로의, 혹은 하나의 완전성 정도에서 다른 완전성

정도로의 이행”(『비물질 노동과 다중』 33)으로서의 정동은 끊임없는 마주침 속에서 존재 능력의 감소와 증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존재의 삶은 되도록 기쁜 마주침을 늘리고, 슬픈 마주침을 줄임으로서 존재 능력을 확대시켜 활동 범주를 넓히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그것이 행복의 증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행들을 개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이로제나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스피노자는 그것과는 반대의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슬픔들을 개괄하는 대신, 기쁨 위에서 국부적인 출발점을 취합니다. 기쁨이 정말로 우리의 관심을 끈다고 우리가 느낀다는 조건 위에서 말입니다. 그 출발점 위에서 우리는 공통 통념을 형성합니다. 그 출발점 위에서 우리는 국부적으로 승리하고자 애쓰고, 이 기쁨을 활짝 열어 놓으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삶의 노동입니다. (『비물질 노동과 다중』 63)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삶의 노동”은 작은 기쁨에서 시작하여 그 기쁨을 확대시켜나가는 존재의 노력과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는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을 담은 삼부작 저서 『제국』(*Empire*), 『다중』(*Multitude*), 『공통체』(*Common Wealth*)에서 정동적 노동을 비물질 노동의 일면으로 다룬다. 하트와 네그리는 비물질 노동을 “서비스, 문화적인 상품, 지식 혹은 소통과 같은 비물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labor that produces an immaterial good, such as a service, a cultural product, knowledge, or communication, *Empire* 290)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대에 재화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을 비물질 노동이라고 한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했다고는 하나 아직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둔 소통 노동이 산업의 큰 기반을 이루고 있다. 실질적인 제품 생산도 중요하지만 SNS를 통한 홍보 및 고객 만족을 위한 직접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가상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은 가상이기도 하지만 마주침이 있고,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정서적인 공명이 있기에 정동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중』에서는 정동적 노동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동적 노동은 편안함, 웰빙, 만족, 재미 혹은 열정과 같은 느낌의 정동을 생산하거나 조정하는 노동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법률 사무소 직원, 승무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웃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에게서 정동적 노동을 인지할 수 있다. (『다중』 108)

Affective labor, then, is labor that produces or manipulates affects such as a feeling of ease, well-being, satisfaction, excitement, or passion. One can recognize affective labor, for example, in the work of legal assistants, flight attendants, and fast food workers(service with a smile). (*Multitude* 108)

위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흔히 사람들이 여성적인 노동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정동적 노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정동적인 노동은 많은 페미니즘 연구자에 의해서 돌봄 노동(caring labor) 혹은 친족 노동(kin labor)으로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생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하트는 이를 현자본주의 체제 밖에 있는 노동의 새로운 양태로 보기보다는 물질 생산 노동의 정점에 있는 비물질 노동으로 보았다. 하트는 이러한 돌봄 노동, 여성적인 노동이 물질 노동이 아니라서 혹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비물질적 정동 노동이 물질 노동을 관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삶 전반의 기반을 만들기 때문인데 하트는 이에 대해 “정동적 노동이 생산하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들, 공동체의 형태들, 삶능력(biopower)인 것이다”(『비물질 노동과 다중』 151)라고 말했다.

하트의 주장에 따르면 정동적 노동은 삶의 가치를 바꾸며, 더 나아가서는 삶의 형태를 바꾸고,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 내는 힘이 있다. 삶능력은 정동적 노동의 네트워크 속에서 발휘될 수 있는 존재를 계속 살아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다. 즉, 정동적 노동은 기쁜 마주침들을 늘려서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며 삶-의-형식(form-of-life)을 재구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의 운신 범위를 넓히고, 삶능력을 증대시키는 노동인 것이다.

삶능력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그의 유명한 저서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에서 처음 언급한 삶권력(biopower)과 같은 단어이다<sup>3</sup>.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이 규제되어지는 양상을 계보학적인 맥락에서 쫓는다. 역사적으로 권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규율과 처벌에 의한 공포 조성으로 그 힘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는 절대적인 권위였던 왕권이 무너지고 권력이 다양한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체의 삶 자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규율 및 관습을 생산해 내는 집단이 그 권력을 쥘 수 있게 되었다. 그 권력이 바로 삶권력이다. 푸코는 삶권력을 “삶과 삶의 기재를 명쾌한 계산의 영역으로 진입시키고 지식-권력을 인생의 변화의 작인으로 만든 것”(to designate what brought life and its mechanisms into the realm of explicit calculations and made knowledge-power an agent of transformation of human life, 143)이라고 말했다. 즉, 삶권력이란 지식-권력을 인간의 삶에 스며들게 하여 새로운 삶의 양식을 짜게끔 하는 권력이다.

푸코가 말하는 삶권력은 권력을 지니고자하는 혹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 및 개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행위로 서서히 개인 또는 공동체의 삶에 침투하여 신체의 능력을 규제하거나 강화시키는 힘이다. 이는 기존의 권력 집단에 대한 저항에서 나올 수도 있고, 기존 권력 집단의 통제에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네그리와 하트가 말하는 삶능력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삶에 말초신경처럼 구석구석 퍼져나가 작용하는 것은 같지만 정동적인 노동을 기반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푸코의 삶권력에 대해서 네그리와 하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삶권력은 사회생활을 내부로부터 규정하고, 따라다니고, 해석하고, 흡수하고, 또 재표현하는 권력의 형태이다. 권력은 모든 개개인의 합의 하에 수용하고, 재가동시킬 수 있는 내재적이고, 필수적인 작용인 경우에만 대중의 전체 삶에 효율적인 명령을 달성할 수 있다... 삶권력은 그러므로 권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삶의 생

<sup>3</sup> 푸코가 언급한 삶권력(biopower)과 네그리와 하트가 언급한 삶능력(biopower)은 영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비물질노동과 다중』의 역자가 채택한대로 한국어 단어는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산과 재생산 그 자체인 상황을 가리킨다. (『제국』 23-24)

Biopower is a form of power that regulates social life from its interior, following it, interpreting it, absorbing it, and rearticulating it. Power can achieve an effective command over the entire life of the population only when it becomes an integral, vital function that every individual embraces and reactivates of his or her own accord... Biopower thus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what is directly at stake in power is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life itself. (*Empire* 23-24)

권력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규율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개개인에게 퍼져나가며 “내재적”으로 수용하여 재구성되는 것이 푸코의 삶권력을 재구성한 네그리와 하트의 삶능력이다. 이처럼 삶능력은 푸코가 이야기하는 삶권력과는 약간은 다른 것인데 삶권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질서 형성이라고 한다면 삶능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흘러가는 질서 형성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질서 형성의 측면을 당대 사회의 여성적 노동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델러웨이 부인』이 출간된 1925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때의 여성의 지위와 권위는 19세기보다는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족한 때였다. 도로시 스미스(Dorothy E. Smith)는 “여자에게 있어서 매일의 경험의 구성, 일상, 시간을 통한 우리 삶을 구조는 여전히 매우 큰 정도로 외부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요구되고 있다”(for women, the organization of daily experience, the work routines, and the structuring of our lives through time have been and to a very large extent still are determined and ordered by processes external, 65)고 말하며 여자의 일상이 외부의 목소리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권력은 여전히 남성의 전유물이었는지 모르지만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에서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그들의 일상을 자세히 그림으로써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클라리사와 레치아를 통해서 타인이 비생산적이고 비물질적인 노동이라고 간주하는 그들의 노동이 어떻게 삶을 지탱하는지를 보여주려 하였다. 네그리와 하트의 의미에서의 정동



적 노동을 행하는 클라리사와 레치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노동이라고 여겨지는 돌봄, 의복을 짓는 일, 파티를 여는 일들과 같은 노동을 통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변화를 촉구하려고 한, 전후에 무너진 삶을 복구하는 삶능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 III. 『델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정동과 삶능력

『델러웨이 부인』만큼 정동(affect)을 잘 설명하고 있는 소설도 없다. 『델러웨이 부인』은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끊임없는 마주침과 그 마주침이 한 개인에게 가지고 오는 공명에서 나오는 정서(affection)의 흐름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아침에 일어나 파티에 쓸 꽃을 사러 가는 장면에서부터 파티가 끝날 때까지 단 하루 동안에 같은 시공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의 정신적인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슬픔과 기쁨의 변이를 살펴보면 정동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소설 처음에 꽃을 사러 거리에 나선 클라리사는 복잡한 런던의 거리에서 다양한 마주침을 겪으며 끊임없이 상념에 빠졌다가 현실로 돌아온다. 옛 친구 휴 휘트브레드(Hugh Whitbread)를 만나서 옛 부어턴(Bourton)에서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폭음소리를 내는 중요한 인물이 탄 듯한 자동차를 만나 호기심과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울프의 서술은 항상 클라리사 중심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서 끊임없이 거리에 공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어갔다 나오며 그들이 같은 마주침에도 다르게 반응하는 양상을 묘사한다. 그 마주침 속에는 기쁜 마주침도 있고, 슬픈 마주침도 있다. 울프는 이런 마주침의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이 삶을 직조해나가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고 생각한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만들어내는 지, 그것을 주위로 쌓아올렸다 무너뜨리는지, 매순간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는지는 오직 하늘만이 안다. 그러나 문간에 앉은 가장 추레한 여인들도, 가장 낙담한 비참한 사람들도(그들의 몰락을 마시는) 마찬가지로. 그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녀는 바

로 그 이유 때문에 의회의 법도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확신했다. (4)

For Heaven only knows why one loves it so, how one sees it so, making it up, building it round one, tumbling it, creating it every moment afresh; but the veriest frumps, the most dejected of miseries sitting on doorsteps(drinking their downfall) do the same; can't be dealt with, she felt positive, by Acts of Parliament for that veriest reason: they love life. (4)

클라리사는 빅토리아 스트리트를 건너며 런던의 거리에 사물과 사람들을 온전히 느끼면서 위와 같이 생각한다. 무신론자로 그려지지만 그와 동시에 “신적인 생명력의 파동”(the waves of that divine vitality, 7)을 사랑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그런 수많은 마주침 속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동의 파동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끝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구축해나간다. 그 구축해나가는 힘이 삶능력인 것이고, 삶능력은 “가장 추레한 여인들도, 가장 낙담한 비참한 사람들”이 삶을 꾸려나갈 때에도 나타나는 능력이며 오히려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규제인 의회의 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이라는 점을 울프는 분명히 하고 있다.

거리에서 울프가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아마도 자동차에 타고 있는 인물일 것인데, 이 인물은 총리일 것이다 여왕일 것이다 라며 다른 사람의 추측으로만 그려진다. 누구인지 감추어진 “권위의 목소리”(the voice of authority, 15)가 들려올 때 클라리사는 “종교 정신”(the spirit of religion, 15)을 느끼는데 클라리사는 “종교적인 흥분은(대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냉담하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둔감하게 한다”(the religious ecstasy made people callous (so did causes); dulled their feelings, 12)고 여긴다. 이처럼 정치적인 명분, 종교적인 광기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삶의 질서는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데, 그 말은 즉 얼굴 없는 권력으로부터의 명령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것은 슬픈 마주침에 해당한다. 그 예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를 본 셉티머스는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자신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기도 한다(16). 1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이지만 전쟁의 트라우마에

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인 셉티머스는 권력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이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축이 그의 삶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에서 울프는 “의회의 법”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삶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삶능력은 추상적이고, 손에 닿을 수 없는 관념보다는 일상의 사소하고 물질적인 것을 붙잡으려는 욕구에서 크게 발휘될 수 있다. 클라리사의 옛 연인 피터 웰시(Peter Walsh)의 클라리사에 대한 세속적이고, 속물적이라는 비난은 이런 의미에서는 비난이 아닐 수 있다. 드레스의 밑단을 고치고, 꽃을 사고, 주변의 가십을 듣고, 런던 거리의 모든 것을 느끼는 클라리사는 삶에 충만한 사람인 것이다. 반면에 클라리사의 부정적인 “더블”(double)이라고 일컬어지는 셉티머스는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다(*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ginia Woolf* 53). 저명한 뇌과학자 올리버 색스(Oliver Sacks)는 뇌손상이 온 사람은 “감정, 구체성, 개인적인 것, 현실적인 것 모두를 잃어버리고 추상적, 범주적인 것만을 부동켜안고 살며 극히 비상식적인 행동”(16)을 한다고 하였는데 셉티머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에 클라리사는 셉티머스와 달리 내부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 혹은 추상적인 관념이 가지는 모호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사소한 것에 뿌리박혀 삶을 꾸려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클라리사는 셉티머스와는 달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혹은 상황의 여러 마주침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마주침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 클라리사는 광기에 사로잡힌 자, 셉티머스처럼 내부에서 오는 신성한 목소리와 같은 추상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질적인 것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오는 정서를 더 믿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뾰족하고, 화살과 같이, 완고한. 그것은 오로지 그녀 자신만이 차이를 아는, 양립할 수 없는 부분들을 끌어모아 그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중심, 하나의 다이아몬드, 자신의 응접실에 앉아 칙칙한 삶들에 의심할 여지없이 빛이 들게 하는, 외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피난처가 되게 하는 만남의 접점을 만들려는 한 명의 여인이었다. (40)

That was her self-pointed; dartlike; definite. That was her self when some

effort, some call on her to be her self, drew the parts together, she alone knew how different, how incompatible and composed so for the world only into one centre, one diamond, one women who sat in her drawing-room and made a meeting-point, a radiancy no doubt in some dull lives, a refuge for the lonely to come to... (40)

클라리사가 응접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면이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클라리사가 치맛단을 고치려하자 하녀 루시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이에 클라리사는 루시의 도움을 거절하며 고맙다고 말한다. 도와주겠다는 루시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지만 클라리사가 느끼는 고마움의 궁극적인 이유는 루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일 수 있게 자신을 만들어주는 데에 대한 고마움이다(42). 클라리사는 루시와의 마주침으로 자신이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클라리사는 또한 다른 마주침의 경우에 자신이 “양립할 수 없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도 안다. 아마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자아가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경우에 정체성이란 여러 “부분들”을 취하여 만들어낸 일관된 자아일 뿐이다. 일관된 자아는 그녀가 내세우는 “중심”이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정수이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정체성은 타인에게 빛이 들게 하는 삶으로 “만남의 접점”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주체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존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클라리사가 추구하는 삶의 최고의 경지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창밖의 노부인에 관한 묘사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녀는 창 밖 반대편에 노부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걸 봤다. 노부인이 계단을 올라가고 싶으면 그대로 둘 것이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게 하라. 그러고는 클라리사가 종종 보았던 것처럼 그녀로 하여금 침실에 들게 하거나,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뒤편으로 사라지게 할지이다. (138)

And she watched out of the window the old lady opposite climbing upstairs. Let her climb upstairs if she wanted to; let her stop; then let her, as Clarissa had often seen her, gain her bedroom, part her curtains, and

disappear again into the background. (138)

『델러웨이 부인』에는 계단에서의 상하 오르내림에 대한 모티프가 많이 나온다. 노부인이 계단을 내키는 대로 오르내리고, 집안 곳곳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즉 존재의 운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또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삶능력을 발휘하여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것이다.

운신의 폭과 긍정적인 마주침에 대한 일례는 피터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랑했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를 이야기할 때 클라리사는 피터가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소설의 마지막에 클라리사의 파티에 피터가 찾아온다. 그때 클라리사는 파티를 여는 자신을 비난하고, 안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자신을 비난하는 피터의 눈길을 느낀다(184). 어렸을 때부터 클라리사는 말하지 않아도 피터가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65). 그런 피터와의 마주침에 클라리사는 자신이 소모되고 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느낀다(184). 비난의 눈길이 주변에 있으면 사람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클라리사가 피터를 사랑했지만 청혼을 거절한 것은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여성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고 못마땅해 하는 피터보다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두는 현재의 남편 리차드(Richard Dalloway)가 더 많은 공간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예는 클라리사의 파티에 대한 해석에서 볼 수 있는데 그녀의 삶능력은 그녀가 파티를 주최하는 데에서 정점에 달한다. 클라리사가 파티의 중심에서 계단 꼭대기 위에 “말뚝”(stake, 187)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노영신은 “파티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아가 말뚝에 비유되고 있다고”(31) 말하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클라리사가 계단의 꼭대기에 서는 것은 자신이 직조한 정체성의 일부이며 이 때의 말뚝은 긍정적으로 삶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컨대 그녀는 굳건히 현실 세계에 뿌리 내려 긍정적인 영향력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IV. 클라리사와 레치아의 정동적 노동과 그 의의

소설의 시작은 클라리사가 파티를 열기위해 꽃을 사러가는 노동에서 시작을 하는데, ‘꽃’을 사러간다는 행위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3). 현재에도 꽃은 바라보고 있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물인 것은 확실하나 금전적인 비용을 주고 구매하기에는 아깝다고 여겨지거나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사물이다. 이러한 꽃에 대한 평가가 꽃을 구매하러 간다고 하는 노동의 의미 또한 퇴색되게 만든다. 이처럼 클라리사가 파티를 열기 위해서 하는 많은 여성적인 노동들<sup>4</sup>에 대한 해석 또한 부분한데 김일영과 조영지는 클라리사에게 있어서 파티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을 수 있는 상징계적인 장소”(203)이며, 그녀의 상징계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돕는 발판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경심은 파티를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각 개인들이 인간관계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공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장”(140)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리사가 파티를 열기위해 하는 노동을 소통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정동적인 노동으로 보고, 클라리사의 파티는 마주침의 장으로서 수많은 개개인의 정동이 공명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로 볼 것이다.

작중의 다른 여러 등장인물은 파티를 여는 클라리사의 행위를 그녀가 꽃을 사는 행위처럼 무의미한 행위로 보기도 한다. 피터나 리차드와 같은 남성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레이디 브루턴(Lady Bruton)이나 미스 킬먼(Miss Kilman)같은 여성 등장인물도 클라리사가 하는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들은 모두 런던에서 클라리사가 만난 여성상들인데 이에 대해 아벨은 클라리사의 런던에서의 삶은 부어턴에서의 시절과 다르게 “이성애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교계 세상”(the heterosexual and androcentric social world, 31)에 가려져 여성 연대에서 떨어진 삶이라고도 본다. 레이디 브루턴과 미스 킬먼이 대변하는 바는 남성우월주의적인 세상 속에 남성적인 가치만을 중시 여기는 여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sup>4</sup> 여성적인 노동이란 생물학적인 여성이 하는 노동이란 의미는 아니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여성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진 돌봄, 친족, 비생산적인 노동을 통칭하는 말이고, 생물학적인 남성 또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레이디 브루턴은 사람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80년대에는 모종의 음모에도 가담할 정도로 큰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116). 미스 킬먼은 종교적인 믿음이 강하고, 근대사 지식이 많은 박식한 신여성이다. 두 사람은 남성적인 성향을 띠는 여성으로서 기존 여성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클라리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레이디 브루턴은 리차드에게 신문사에 쓸 편지에 조언을 구하는 오찬에 클라리사를 같이 초대하지 않는데 이는 신문사에 투고를 하는 것과 같은 남성적인 비즈니스에 클라리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미스 킬먼은 클라리사와 같은 사교계 안주인을 불쌍하게 여기는데(145) 클라리사와 같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에 대한 비난과 부러움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런 캐릭터들을 통하여 울프는 클라리사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려 하였다기보다는 여성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같은 여성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세태를 드러내려 했다고 본다.

그 반면에 클라리사와 같이 눈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전후에 무너진 삶을 재건하며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그치지 않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들도 등장한다. 가장 아끼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자회를 연 레이디 벅스버러(Lady Bexborough)(5), 팔순이 넘는데도 한쪽 눈을 잃고도 난초를 키우며 살아가는 미스 페리(Miss Helena Parry)(195) 등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다. 이들은 클라리사와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때에 추상적인 관념보다는 현실적인 일상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이다.

클라리사의 정동적인 노동의 숭고한 가치는 자기 자신만의 안위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한다는 데에 있다. 울프는 『삼 기니』를 통해서 “싸우는 것은 항상 남성들의 습관”(to fight has always been the man's habit, 158)이었다는 것을 명시하며 인간 본성을 재고하게 한 비극적인 전쟁을 지금껏 우위에 있었던 남성적인 가치의 탓으로 돌리고, 여성의 교육을 통해서 여성적인 가치를 사회에 불어넣을 것을 촉구한다. 울프가 생각하는 여성적인 가치는 『등대로』(*To the Lighthouse*)에 나오는 램지 부인(Mrs. Ramsay)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녀는 집 안팎으로 기쁜 마주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틀을 짜고, 그 틀에서 정동의 흐름을 관장하고, 부유하는 삶에서 중심이 되는 안정감을 제공한다. 클라리사 또한 파티를 통해서 그런 틀을 만들고, 전후에 무너진 일상을 이

어나가게 하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울프는 이러한 여성적인 능력을 여성의 본성으로 생각하거나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여성의 이런 삶능력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키워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클라리사의 딸 엘리자베스(Elizabeth Delloway)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킬먼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약간은 반항적이다. 장갑이나 모자와 같은 흔히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좋아하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사냥개와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포플러 나무, 이른 새벽, 수선화, 새끼 사슴, 흐르는 물, 정원의 백합과 비교하는 것”(to compare her to poplar trees, early dawn, hyacinths, fawns, running water, and garden lilies, 147)이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그녀의 천성과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인 기대가 그녀를 규제하는 것이다. 울프는 생물학적인 천성보다는 이런 사회적이고 후천적인 요구로 인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지하고 있었다.

클라리사와 같이 강인한 삶능력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는 또 다른 인물의 예로는 레치아를 들 수 있다. 레치아는 이탈리아에서 시집을 와서 셉티머스와 살아가는데 셉티머스는 셰익스피어(Shakespeare), 단테(Dante), 아이스킬로스(Aeschylus) 등을 읽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지껄이는 등의 정신 이상을 보인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셉티머스지만 레치아가 이탈리아 본가에서 언니들과 함께 모자를 만들며 웃을 때 안정감을 느꼈고, 이를 피난처라고 칭한다(95). 아벨은 레치아가 셉티머스와 결혼하여 영국으로 온 것을 “레치아의 여성 세계가 결혼과 전쟁의 조합으로 깨진”(Rezia’s female world is shattered by the conjunction of marriage and war, 41)것으로 평했는데 이는 레치아의 능력을 작게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치아는 오히려 현실 감각을 잃고 부유하는 셉티머스를 누르는 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레치아는 끊임없이 “봐요, 봐요, 셉티머스!”(Look, look, Septimus! 23)라고 이야기하며 셉티머스가 내면세계에 침잠하지 않게 외부세계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설 초반에 비행기를 관찰할 때 레치아의 손이 셉티머스의 무릎을 누르며 고정시킨다는 (24) 묘사가 나오는 데, 이는 레치아가 셉티머스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



는 유일한 구심점이라는 것을 의도했다고 본다.

셍티머스가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외부 세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한 것은 죽기 직전에 레치아와 필머 부인(Mrs. Filmer)의 모자를 만들면서이다. 모자를 만드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 첫 번째로 모자를 만드는 행위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서는 삶의 영역을 담고 있다. 모자의 장식을 다는 것은 패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는 문화적인 것을 창조하는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생에 직결되기보다는 삶의 양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모자를 만드는 데에는 모자를 받을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게 될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인 공여가 포함된다. 생존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의 생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정서적인 공여는 정동적 노동의 전유물이다.

레치아의 이러한 정동적 노동이 셍티머스로 하여금 현실감을 가지도록 한다. 셍티머스는 레치아가 모자를 만들 때 옆에서 필머 부인의 딸이 결혼했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155), 그 자신이 모자 장식의 배열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157) 그는 소설 중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종이를 들어 가장자리를 가지런하게 하면서 그녀는 셍티머스의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 거의 보지도 않으면서 그 꾸러미를 묶었다. 그는 마치 꽃잎이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꽃피는 나무였다. 그녀의 가지사이로 입법자의 얼굴들이 보였다. 그녀는 흠즈도, 브래드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역에 도달하였다. 기적이고, 승리고, 최후의 승자였다. (162)

Shuffling the edges straight, she did up the papers, and tied the parcel almost without looking, sitting close, sitting beside him, he thought, as if all her petals were about her. She was a flowering tree; and through her branches looked out the face of a lawgiver, she had reached a sanctuary where she feared no one; not Holmes; not Bradshaw; a miracle, a triumph, the last and greatest. (162)

달인처럼 자신이 쓴 글을 추리는 일을 하는 레치아를 보면서 셍티머스는 그녀를 “꽃피는 나무”에 비유한다. 맥기건은 “셍티머스는 의미심장하게도 레치아 스스

로가 어머니 자연이 된 것으로 본다”(Septimus sees Rezia transformed, significantly, into Mother Nature herself, 132)고 해석하였다. 셉티머스를 치유하겠다고 하는 의사들인 홈즈와 브래드쇼는 기존의 남성 질서를 대변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셉티머스는 홈즈를 “인간 본성”(Human Nature, 101)이라고 칭하며 두려워하는데 소설 전반에 셉티머스가 두려워하는 인간 본성이란 전쟁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인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래드쇼는 “균형”(Proportion)을 신봉하는 인물로 공고히 된 남성 질서 속에서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잘 적응하는 사람의 표본이자 그 질서 속에 맞지 않는 사람을 도태된 사람 취급하는 우월주의자이다. 셉티머스는 대자연으로 대변되는 레치아가 “입법자”로 대변되는 홈즈와 브래드쇼를 뛰어넘는 “성역”에 도달했다고 본다. 울프는 이 장면을 통해서 레치아가, 레치아의 정동적인 노동이 셉티머스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다른 위로부터 아래로의 규율을 만드는 입법자들의 대변인들보다 훨씬 더 셉티머스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동적 노동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셉티머스는 “소통이 건강이고, 소통이 행복이다”(Communication is health; communication is happiness. Communication, 102)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맥기건도 서로간의 이해와 소통이 확실히 셉티머스를 구했을 것이라고 그 이해와 소통이란 주변과 타자와 연결된 느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133).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다른 의사들보다 매일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형식을 만들어 내며 이웃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레치아가 더 셉티머스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그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다.

셉티머스와 델러웨이의 최종 행보는 다르다. 셉티머스는 홈즈의 방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델러웨이는 삶의 찬란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전파하는 사람을 살아간다. 이 둘의 차이는 주변의 여러 마주침을 인식하며 기쁜 마주침으로 삶을 이끌어어나가기 위한 정동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삶능력의 유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 V. 결론

『델러웨이 부인』 속의 주인공 클라리사는 남편 리차드, 예전의 연인 피터 모두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파티를 열기위해 하루를 보낸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그녀의 비물질적 노동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논문이다. 그녀의 노동은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의 정동적 노동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페미니즘 연구에서 행해져 왔던 돌봄 노동과 친족 노동의 차원을 넘어선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하트는 “정동적 노동의 네트워크들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은 ‘삶-의-형식’(form-of-life)”이라고 말한다(『비물질 노동과 다중』 153). 클라리사의 노동은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삶을 재단하려고 하는 리차드나 해외에 나가 조국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피터의 노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지만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삶-의-형식’이라고 생각한다. 클라리사의 노동은 전후의 새로운 여성상을 지향하는 도리스 킬먼이나 레이디 브루턴과 같은 동일한 생물학적 여성에게서도 외면당하거나 비하당하기 쉽지만 결국에 삶을 살아가는 능력, 즉 생명력은 이런 정동적 행위에서 나오고, 그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레치아의 삶 또한 정신이 온전치 않은 남편을 둔 불쌍한 여인의 삶으로 축소되기 쉽다. 하지만 그녀의 문화를 창조하는 예술가다운 기질과 매일의 삶에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방식이 오히려 전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잠재적인 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후에 셉티머스와 같이 전쟁 트라우마를 앓는 사람들, 혹은 전쟁 전의 질서에 함몰되어 무엇이 파괴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레치아의 삶은 삶을 살아가려는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길거리를 나서는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들려오는 클라리사의 파티 초대처럼 험난한 세상으로 뛰어들다 보면 클라리사의 매일의 삶을 위한 노동과 비물질 노동은 등한시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주변과 연결해주는 소통의 장을,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그녀의 노동은 결코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20세기 전후에 울프가 강조하려고 하였던 여성적 노동 및 가치의 잠재성을 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Works Cited

- Abel, Elizabeth. *Virginia Woolf and the Fictions of Psychoanalysis*. Chicago: Chicago UP, 1989. Print.
- Blair, Emily. *Virginia Woolf and the Nineteenth-Century Domestic Novel*. New York: SUNY UP, 2007. Print.
- Chung, Myung-hee. "Mrs. Dalloway: Party and Party Consciousness."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3.1(2005): 141-162. Print.  
[정명희. 「『댈러웨이 부인』: 파티와 파티의식」. 『영미문학 페미니즘』 13.1(2005): 141-162.]
- Czamecki, Kristin. "Melted Flesh and Tangled Threads: War Trauma and Modes of Healing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and Leslie Marmon Silko's *Ceremony*." *Woolf Studies Annual* 21(2015), 50-77. Print.
- Deleuze, Gilles, et al. *Immaterial Labor & Multitude*. Translated by Changhyun Seo, et al. Seoul: Galmuri, 1994. Print.  
[들뢰즈, 질(외). 『비물질 노동과 다중』. 서창현(외) 역. 서울: 갈무리, 1994.]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90. Print.
- \_\_\_\_\_.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2: The Use of Pleasure*. New York: Vintage Books, 1990. Print.
- Noh, Young-shin. "Woman's Conflicting Consciousness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6.4 (2014): 17-36. Print.  
[노영신.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분열된 여성의식」. 『새한영어영문학』 56.4(2014): 17-36.]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Commonwealth*. Boston: Belknap P, 2011. Print.
- \_\_\_\_\_. *Empire*. Cambridge: Harvard UP, 2001. Print.
- \_\_\_\_\_. *Multitude*. New York: Penguin Books, 2005. Print.
- Hite, Molly. "Tonal Cues and Uncertain Values: Affect and Ethics in *Mrs. Dalloway*." *Narrative* 18.3(2010), 249-275. Print.
- Jeong, Gyeong-sim.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in *Mrs Dalloway*." *Yongbong Journal of Humanities*. 42.0(2013): 121-147. Print.  
[정경심. 「『댈러웨이 부인』에서 보이는 소통과 공존의 모색」. 『용봉인문논총』. 42.0(2013): 121-147.]
- Kim, Il-yeong, and Young-ji, Kim. "Mrs. Dalloway's Ambivalent Desires: Lacanian Femininity in *Mrs. Dalloway*."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9.2(2013): 197-219. Print.

[김일영. 조영지. 「댈러웨이 부인의 양가적 욕망 – 『댈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라캉적 여성성. 『영어영문학』 59.2(2013): 197-219.]

- Lee, Hermione. “Mrs. Dalloway.” *Mor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s, 1988. Print.
- \_\_\_\_\_.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London: Methuen & Co Ltd, 1977. Print.
- McGuigan, John. “The Unwitting Anarchism of Mrs. Dalloway.” *Woolf Studies Annual* 19(2013), 123-145. Print.
- Moody, A. D. *Virginia Woolf*. London: Oliver and Boyd LTD, 1966. Print.
- Roe, Sue and Susan Sellers.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ginia Woolf*. Edinburgh: Cambridge UP, 2000. Print.
- Sacks, Oliver. *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Translated by Seokhyun Cho. Seoul: Alma, 2016. Print.
- [색스, 올리버.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조석현 역. 서울: 알마, 2016.]
- Smith, Dorothy. *The Everyday World as Problematic: A Feminist Sociology*. Boston: Northeastern UP, 1987. Print.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and Three Guineas*. Oxford: Oxford Up, 2015
- \_\_\_\_\_. *Mrs. Dalloway*. New York: Penguin, 1992. Print.
- \_\_\_\_\_. *To the Lighthouse*. Oxford: Oxford UP, 2009. Print.

윤수현 (경상대학교 / 시간강사)

주소: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그린빌아파트 110-1401

이메일: kid1283@naver.com